

신 개 발

원적외선 방사 세라믹

참나무 숯불 체험실

김형문 : 지리산적외선 대표, 사단법인 한국원적외선협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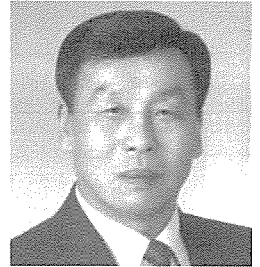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소재한 지리산적외선은 원적외선 산업이 태동하던 80년대에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맥반석을 이용한 원적외선 체험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도 보다 우수한 소재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업체이다.

원래 맥반석은 중국 명나라때부터 신비의 돌로 여겨져 왔으며 중국 한의학의 대가인 이사진도 본초강목에 “그 성질이 덥고 따듯하며 독성이 없어 각종 피부병, 종기 등에 널리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맥반석을 구워 배위에 올려놓고 문지르거나 손에 쥐고 있으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오장육부가 편안해지며 부수렴, 피부병, 가려움증이나 상처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했다. 즉, 불가마 사우나는 약석으로 일컬어지는 맥반석을 현재 맞는 방식으로 건강아이템화한 것이다.

이에, 지리산적외선은 1988년부터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한병성(공학박사)교수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양질의 원적외선 세라믹을 개발하여 원적외선 방사율이 93% 이상이 되는 맥반석을 원료로 하는 원적외선 방사 세라믹 제조방법(발명특허 제125721호)으로 발명특허를 공동으로 1997년 10월 9일 획득하였으며 “원적외선 세라믹방사 참나무 숯불가마”로 실용신안등록 제0182304호를 2000년 3월 16일 취득한 국내 유일의 업체이다.

그간 학계에서 제기된 인체에 해로운 700~800℃ 이상의 고열로 가열하는 불가마 체험실을 운영하기에 피부손상 및 노화현상, 가시광선의 자외선 침투 등의 위험이 있다고 TV방송이 된 바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피부손상과 노화방지를 위하여 고온을 피해

저온을 사용하고 있다. 학계 연구결과 광물의 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해문제로 가스중독, 가스폭발, 전자파의 발생이 경영주나 체험실 이용자의 고민거리였다. 과도한 시설비, 연료비, 관리비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간 연구하여 개발한 참나무 숯불방은 천연연료인 참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공해문제, 가스중독, 가스폭발, 전자파의 발생걱정을 완전히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 원적외선 체험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신개념의 가마를 사용한 국내 최초의 참나무 숯불방으로서 국내 유일의 맥반석 원적외선 발생 방사세라믹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세라믹과 학설에 의하면 사람을 살린다는 순수 참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인체에 유익한 300~500℃로 가열하여 원적외선 세라믹 방사체와 참나무숯의 「음이온 효과」를 한번에 체험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원적외선 체험장 개설시 가장 큰 고민거리인 과도한 초기투자 비용문제때문에 신규로 운영하고 싶어도 못하셨던 분이나 기존체험장을 운영하시던 분들의 3대 문제점인 가스, 전자파, 연료비를 일시에 해결한 획기적인 신개발 체험장시스템이다.

현재 본사에서 1999년 10월부터 전북 전주시 죽림온천 옆 가스불가마 3기중 기존 체험장 1기를 참나무 숯불방 체험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던바, 참나무 숯불방으로만 이용자가 물리고 개조하지 않는 체험실은 이용자가 없어 폐기되다시피 하고 있다.

“참나무 숯불방”은 하루기준 2~3회만 5~6개씩의

참나무를 넣어주기만하면 24시간 내내 방사를 할 수 있음으로써 획기적으로 연료비를 줄일 수가 있어서 연료비는 가스사용시의 1/5가격인 60~70만원 정도이다. 또한 고정식 가열로로서 방사체를 설치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닥 휴게실 난방은 체험실 폐열로서 사용된다(약 50평정도까지). 약 5개월동안 가동한 결과 체험실 이용자로부터 대호평을 받고 관리비 및 연료비등이 절약되며 2000년 3월 10일부터 경남 거창군 고제면 300평 기존가스 2기의 체험실을 전체 참나무 숯불방으로 개조하여 현재 체험실 이용자로부터 대호평을 받고 설치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본사는 순수참나무 원료와 발명특허 원적외선 세라믹 방사체 및 재료를 사용하여 피부손상이 없이 인체에 유익한 300~500°C로 유지, 원적외선 방사율을 극대화시켜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체험하실 수 있으며 향후 본사에서는 참나무를 100% 공급알선하여 경쟁없이 일개 시, 구, 군 단위로 1개 체험실만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인구 25만이상은 예외로 함).

이상에서와 같이 기존체험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인 가스나 전기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되어 외화를 소비하는 반면에, 금번 새로 개발된 참나무 숯불방은 천연연료로 전국적으로 남아도는 참나무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환경친화적이어서 고객에도 좋고, 국내, 국제적으로도 환영받는 일석삼조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산적외선 임직원 일등은 항상 창의적인 정신과 자세로 고객에 대한 업체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시스템을 정립하여 국민건강 산업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연구를 통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신소재를 개발하여 국가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288번지

광산 및 공장 소재지 : 지리산 즐기인 남원시 산등면

TEL : (0652) 252-5841

